

지구 온도상승폭 2℃보다 ‘훨씬 낮게’ 제한

195개 당사국 파리 기후협정 최종 합의

美·中 등 선진국 2020년부터 개도국에 매년 118조 지원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전 세계가 참가한 보편적 기후변화 협정이 12일(현지시간) 체결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이날 회의장인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 지켜야 하는 구속력 있는 첫 합의다.

31페이지 분량의 파리 협정 최종 합의문을 보면 당사국들은 새 기후변화 체제의 장기 목표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섭씨 1.5℃까지 제한하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서 국가나 기후변화 취약 국가들이 요구해 온 사항이다. 현재 지구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가량 상승한 상태다.

온도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해 180개국 이상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감축목표(기여방안·INDC)를 유엔에 전달했다.

또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능한 한 빨리 최고치를 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신속하게 감축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최고치에 도달하는 데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차이를 인정했다.

당사국들은 합의문에서 급세기 후반기에는 인간의 온실 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촉구했다.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000억 달러(약 118조15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2023년부터 5년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는 지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막한 이번 총회에서 195개국 대표들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문을 마련하고자 논의했다.

앞서 1997년 채택된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웠지만 파리 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책임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기후 재앙을 막는데 동참하게 됐다.

이날 합의에 대해 일부 환경 운동가들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면 파리 에펠탑 주변 등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예초 이 총회는 전날인 11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협상 참가국 간 견해차 때문에 이날까지 회의의 기간이 하루 연장됐다.



금남로 성탄 트리 점화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13일 밤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2015 광주시 성탄트리 점화식'을 가졌다.

채무, 광주시 늘고 전남도 줄고

작년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

광주 20.8%, 전남 8.79%

전국 평균은 14.83%

광주시의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다. 장기간 재정 위기에 봉착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자립도를 박탈하는 긴급재정관리제가 도입된 가운데 전남도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 공시사이트인 재정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종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은 광주가 20.80%, 전남은 8.79%다. 광주는 전국 평균 14.83%보다 5.97포인트 높고 전남은 6.04%포인트 낮다.

전국 지자체 채무비율은 2010년 18.36%에서 2011년 17.22%, 2013년 15.47% 등 매년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광주는 2010년 17.66%에서 2013년 19.56%로 2%포인트 넘는 등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이벤트에 나서면서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남은 2010년 9.56%에서 2013년 9.98%로 조금 늘었다가 F1대회 중단 등으로 인해 지난해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빛을 내지 못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전 지자체를 통틀어 합한 재정자립도는 광주가 49.30%, 전남은 22.83%다. 기초 지자체 중에는 10%도 안 되는 곳이 7곳에 달한다. 신안군이 7.41%로 가장 낮고 해남군(8.88%), 구례군(9.79%) 등이 10% 미만이다. 조정교부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을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더 떨어진다. 진도군 4.59%, 신안군 4.83% 등 무려 13개 지자체가 10%를 넘지 못했다.

광주지역은 서구(24.02%)와 광산구(21.46%)를 제외한 3개 구가 10%대에 머물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내년 예산 4조605억, 전남 6조530억

시·도의회 예정위 통과

광주시·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광주시와 전남도의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광주시는 4조605억원, 전남도는 6조530억원 규모로 내년도 살림을 꾸려나갈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예정위는 지난 1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광주시가 제출한 예산안 4조602억원 중 약 2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8485억원보다 5.5% 증가한 금액이다.

예결위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회계 3조2181억원, 특별회계 9324억 등 4조604억8000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민원 해결용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삭감

이 예상됐던 시민참여예산은 78건 125억원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직장발전센터 운영(2억5천만원), 결식아동 후원 재단 출연(5억원), 광주여대 체육관 부설 주차장 건립(5억6천만원) 등 관련 예산은 전부 또는 일부 삭감된 반면 광주복지재단 출연금(2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1억원) 등은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됐다.

전남도의회 예정위도 같은 날 전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억3377만여원을 삭감한 6조5302억5979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일반회계 5조6506억7765만원, 특별회계 8795억8214만원 규모다. 시의회와 도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종형기자golee@kwangju.co.kr

전남도교통연수원 16일 강진으로 이전

지난 1988년 개원해 운수종사자와 전남도민의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해온 전남도교통연수원이 광주 시대를 마감하고 16일 강진으로 이전한다.

전남도교통연수원은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에 신축 연수원을 준공, 오는 16일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강진원 강진군수 그리고 200여 교통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개원식을 갖는다.

지난 1985년 교통부 허가로 전남도운수종사원연수원으로 출범한 연수원은

광주시와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운영되어오다 지난 2012년 광주시와 전남도 간 연수원 분리 협약에 따라 전남으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1만7000여㎡ 부지, 연면적 2000여㎡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선 교통연수원은 200석 규모의 대강당과 70석 규모의 세미나실, 50여 명 수용이 가능한 생활관, 식당, 200여 대의 주차 시설을 갖췄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남해안 수은 16년새 1.3도 올라

지구 온난화 영향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지난 16년간 제주도 주변 남해안 표층 수온이 최대 1.3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년 4~6회 남해안 수온을 관측한 결과, 제주해협 부근 해역(모슬포·제주북부·여수)을 따라 표층 수온 상승세가 뚜렷하다고 최근 밝혔다.

2000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0년간 남해안 전체 표층의 수온 평균 상승폭은 약 0.8도, 2015년 3월까지 16년간 상승폭은 약 1도였다.

16년간 모슬포·제주북부·여수 해역은 각각 표층 수온이 1.3도 오르고 부산 해역은 0.9도 상승했다. 성산포는 2004~2015년 12년간 0.2도 올랐다.

수심 50m 저층에서도 약한 수온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16년간 수온 상승폭은 모슬포 0.8도, 부산 0.6도, 여수 0.4도, 제주북부 0.1도 등이다.

남해안 평균 수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다. 쿠로시오 해류에서 나뉘어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고온·고염 대마난류의 수온이 오르고 수송량도 늘어난 여파로 해양조사원은 분석했다.

해수 온도 상승은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어장·해류·해수면 변동 등 해양환경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다.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대구 등 한류성 어류가 북쪽으로 이동해 어획량이 줄고 대신 아열대성 어종이 출현하는 등 ‘물고기 지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의원

라식 vs 라섹

라식 수술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다르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

의료원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